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DEC 25 1964

태평양주보

| | |
|---|----------|
| 사 | 김학성 |
| 주 | 김창원 |
| 편 | 김창수 |
| 행 | 동회중앙부 |
| 인 | 조노우·김스트릿 |
| 화 | 조노우·하카이 |
| | 八五〇八四九 |

제 一五三三호
12/18/1964
서기 一九六四年十二月十八日

소련수상 영국방문예정 일선영국수상의 초청을 수락

(본보十二月十七日발 A.P.) 일선수상은 오늘 국회에서 외교문제에 관한 연설을 고스리긴, 소련수상이 영국방문의 초대를 응락하였다는 발표 이외동시에 소련정부도 일선수상의 소련방문은 수락한것을 명백히하였다. 고스리긴, 수상이 영국방문의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신년후가 될것이다. 라고 일선씨는 말하였다.

동서수뇌회담을 제창

일선수상은 오늘외교연설중 다음같은 말을 하였으며 의견을 말하고 주의를 끌었다. 이러한 회담이 단순히 서측의 내부에서만 아니고 더 광범위하게 자수있는것은 우리의 한것은 의회도 그것을 인정할것으로 생각한다.

국방비축소에 노력

우엇보우도 제 一 중요한것은 국방비축소의 진을 발전하는것이다. 영국국내에서도 재검토가 전면 회담의 필요가 이른바적으로 두감되고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상으로 힘드는 말을 하여왔다. 그렇바로, 우리는 드리려 국방강화에 실패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약하게 하고 국가의 독립성까지 위협하게 하고 있다. 금년의 국방예산은 24억 파운드 (3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의 물가로 국방비의 팽창이 계속된다면, 국방력은 증대하지않고, 준비는 24억 파운드 (30억 달러) (현인본)로 팽창하게된다.

라스코 드골 회담

(12월 17일발 A.P.) 라스코 미국부장은 오늘, 엘제, 앙으로 드골 대통령을 방문하고, 한시간 회담하였는데, 두수뇌는 중공의 핵, 무방실험에 대해서 해부기화신방지의 문제는 더 진보한것이 되었다는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드라스코, 드골 회담은 라스코씨의 이번 불란서 방문중의 있어서의 제 2회 회담의 것이었다.

(제 3편으로부터 계속)

이. 짧은 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각천의 사업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최초로 사직된 것은 뉴욕주로부터 국회의원의원에 출마한 고대통령의 동생, 라벗스켄데의 전 사법장관이였다. 한지씨는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켈데의 내각 초기부터 내각원, 처우세의 고령으로 자기는 최초로 4년 이상은 근무인정할 결심으로 입각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쏘든대통령은 도의의 엄정성을 구한, 그의 퇴직을 애석하게 생각하였으나

시사무주장관

금년 이리나 내년 1월 초까지 취임의 예정이, 콘나시(코나시)는 마크 제약회사사장, 지난 대통령선거 시에는 쏘든 씨 지지에 대한 영향을 사업업자의 한 사람이다. 오늘날 각천 경쟁 발표에 있어, 쏘든대통령은 한지, 콘나, 양외에, 처우, 노동, 장관, A.F. of D 조합, 쏘지, 미니, 회관,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였다.

미소양국은 이미

강대한 행정적력 보유

멕시코대라장관, 북대서양조약회의 탐

(다라니츠인발 AP) 현재 양국의 개혁을 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각각 회의에 의했다. 멕시코대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날 다음과 같이 연설, 서구 제국이 각자 별개의 행정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현재 미국과 소련은 행정적력이 인연나 나면 어느 쪽도 상대방의 국민을 한꺼번에 1억 명씩 죽일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이상 행정적력이 행정력에 대자본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행정력이 미국, 소련 양국 국민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미소 양국 국민에게 보더라도 인구가 치밀한 서구 제국에 더 우선인 것이라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서구 제국을 행정적력 싸움으로 만들고 미소 양국을 행정적으로 부러의 피난지로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미국은 현재 서구인에만 히도지만, 나가자끼, 에 투하원 원자폭탄의 초전배나 되는 행정력은 배비하고 있다. 이것은 TNT 백만톤의 폭발력에 상당한다. 미국 정부로서는 카국내의 국방과 다한 자력으로 서구의 방비라는 것을 상상, 년모음에 두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방으로 보아 현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제국의 군비태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나라를 빼놓지 않고 그의 국방비율을 현재 이상으로 증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그 반면, 현재



(케프먼으로부터 제후)

미국 자국민의 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해무기는 서구 제국
반기를 위해서도 그 목적을 선정하고 있다. 백내라 장관의 연설은 비밀
회의에서 한 것이었는데 그의 목적의 영 불린서 양측의 독립된 행정
개발을 방지하고 내국의 강경히 추진하고 있는 부대서양 조약기구 해하임대
차설의 추진에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일회담 반대공기완화 일본외무성대표키국담

(음성실사처를발공음) 한국외정리사장은 시찰하기위하여 한국을방문중이
였을 일본외무성의 우시바카참사관은 11차일제너키국하였다. 두참사관은
지난 11일 한국을방문하고 동북극의 수외화 회담하는등 한국외정리정책
경제정책 경제협력의 심원. 어떤의 실태등을 시찰하였다. 우시바카참사
관은 외부성에서 기자회견을하고 한국외정리정책 경제정책은 호전하고
있다. 또한 일 회담에 대한 야망. 시는. 학생등의 반대도 존재보다 훨씬
적어지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노동시간의 단축업 사실상 차차 실현

(와싱턴 11차인발사) 현재 1주 47시간의 노동제는 1주 40시간으로 내리
하는 미국노동조합의 미국의회의의 투쟁은 지금도 끈질기게 감행발행
노동조합의 관련지나 다산 보고의 하면 미국의 노동시간은 7가
임법과는 별도로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 하나씩 단축되고
있다. 노동성발표의 수자에 의해서도 전국인구노동자의 1주 41시간에
회안되는 8백만의 노동자는 이제 1주 44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으로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라 인공수입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사무현의 트루먼의
인재공의 9(8) 퍼센트. 부인의복 노동자의 9(7) 퍼센트. 양주업 노동자의
9(5) 퍼센트 등은 모두가 44시간 이하 40시간 이하로 상당히 있고,
뉴올리외 전기공들은 1주 43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의 단축은
각방면의 새로운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조합측은 전국 3천 9백만의 사무원에게 똑같은 시간 단축을 강요하기
위해 66번의 회의를도 벌일한 인노동관계의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